

유사휘발유 불법판매 여전

전라남도, 자동차경유에 등유 섞어 ... 4600리터 압수

정부 차원에서 유사휘발유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은 3월22일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유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3월17일 오후 4시 경 해남군 해남읍 자신의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10-20% 가량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유와 구별하려고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산성 백토를 이용해 제거한 후 주유기가 설치된 지하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혼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등유와 경유가 섞인 석유 4600ℓ와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산성 백토 150kg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유씨가 2009년 7월부터 주유소를 경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사휘발유 판매량이 수만ℓ에 이를 것으로 보고 유씨와 거래한 해남의 다른 4곳 주유소와 석유 도·소매업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액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2>